

화순군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 필요”

자체 예산 추가 투입 올해부터 전국 첫 年 120만원 ‘100% 인상’

화순군이 기존 연 60만원씩 지급하던 농어민 공익수당을 100% 인상해 올해부터 12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농어민수당을 120만원 이상 지급하는 곳은 화순군이 유일하다.

전남도내 22개 시·군은 현재 대비 40%, 시·군비 60% 재원으로 가구당 60만원씩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화순군이 처음으로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해 12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화순군은 전년 대비 54억원이 늘어난 108억원을 올해 농어민수당 예산으로 편성했다. 도비 21억6000만원, 군비 8억4000만원 등이다.

구축군 화순군수는 지난해 2월 전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농어민수당 지급액을 120만원으로 인상하자고 공식 제안했으나 이후 협의회 차원의 진전이 없었다.

농어민수당 120만원 지급은 구 군수의 민선 7기 공약으로 2019년 12월 처음 7430가구에 30만원

(3개월분)씩, 총 22억29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다 지난 2020년 전남도의 공익수당 도입과 시장군수협의회회의의 ‘전체 시·군 동일 금액(연 60만원) 지급’ 결정 등에 따라 화순군도 연 60만원을 지급해 왔으며 이번에 이를 100% 인상키로 했다.

구축군 화순군수는 “군민들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군 자체적으로 농어민수당을 인상, 지급하기로 했다”며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의 국가 정책화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흥군 용산면과 안양면을 잇는 정남진대교.

장흥군 용산면~안양면 ‘정남진대교’ 임시개통

30분 거리 3분으로 단축...해안도로 관광거점 기대

장흥군 용산면과 안양면을 잇는 정남진대교가 임시 개통했다.

지난해 12월 준공한 정남진대교는 길이 430m, 폭 14.5m 규모의 해상교량으로 지방도 819호선 확·포장공사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사업은 장흥군 용산면 상발리에서 안양면 사촌리까지 길이 3.16km의 2차로 개설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남도가 시행을 맡았다. 2011년 12월 공사를 시작해 오는 31일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다.

다리가 개통 되면 자동차로 30분 걸리던 용산면 남포와 안양면 장재도 사이의 거리가 3분 안팎으로 가까워진다.

장흥군은 다도해의 수려한 경관 한 가운데로 해안도로가 앞당겨지면서 새로운 관광 거점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안도로를 활용해 마라톤, 자전거, 걷기 대회

를 유지하는 등 장흥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스포츠 마케팅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지방도 819호선 장흥군 구간은 남파랑길 78코스에서 80코스에 해당한다.

남파랑길은 부산광역시에서 해남 땅끝마을까지 남해안을 따라 연결된 총 90개 코스 1470km의 걷기 여행길이다.

정남진대교가 개통되면서 ‘남쪽 쪽빛 바다를 함께 걷는 남파랑길’이 걷기 여행자의 발 아래로 들어가게 됐다.

장흥군 관계자는 “정남진대교 건설로 지역민의 편의가 높아진 것은 물론, 지역 해안 관광 발전의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며 “전라남도의 경제 부흥정책인 ‘블루 이코노미’와 발맞춰 연안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나주배박물관 ‘새단장’ ... 체험프로그램 다채

컴퓨터·주차장·출입로 확대 등 시설 정비... ‘환영·만남·이해·체험·감동’ 5개 전시공간도

전국 유일의 ‘배’를 테마로 한 전시 공간인 ‘나주배박물관’이 관람객 편의 향상과 휴식공간 확대를 위해 새 단장을 마쳤다.

나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국립박물관 건립지원사업 선정으로 추진한 나주배박물관 노후 시설 개보수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억5000만원을 들여 출입구·바닥공사를 비롯해 LED로고 교체, 진흙입로·주차장 정비, 조경수 식재, 벤치 등을 설치해 보다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한다.

앞서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환영·만남·이해·체험·감동’으로 꾸민 5개 전시공간도 새롭게 조성했다.

나주 금천면에 소재한 배박물관은 지역 대표 특산품인 ‘나주배’의 유래와 맛·효능 우수성 홍보를 위해 1992년 개관한 후 2004년 리모델링을 거쳤다.

현재 유물 100점 이상을 보유한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운영 중이다.

박물관 전시실에선 국내외 배 재배 현황과 고문헌 속 나주배의 역사, 생활 속 쓰임새 등을 영상과 전시물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아외 공간에는 배꽃과 배나무 가지를 테마로 한



시설 개보수를 통해 새 단장한 나주배박물관 전시공간.

조형작품 ‘일지춘심’을 비롯해 국내육성종 배나무를 전시하고 있다.

나주시는 추후 전시실 내부시설과 영상장비도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나주배박물관 관계자는 “박물관 개보수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쉽고 여유가 있는 문화공간을 선사할 수 있게 됐다”며 “관람객 방문에 맞춰 코로나19 방역준비를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농촌지도 시범·지원사업 공모

함평농업기술센터 28일까지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농촌지도 시범·지원사업을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영농지원 분야에서 후계농업 경영인 지원 외 7개 사업, 기술보급 분야에서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확산 모델시범 외 41개 등 총 50개 사업이다.

농업인은 28일까지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해당 사업별 신청 기준에 적합한 주민 또는 단체 등이다.

대상자 선정은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 사업장 현지조사 등을 거쳐 2월 중 농업산학협동 심의회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황룡강 ‘소통광장’ 공영주차장 임시 개방

황룡강 ‘소통광장’ 공영주차장이 일시적으로 개방된다.

장성군은 황룡강 근교에 조성 중인 소통광장 공영주차장을 10일부터 무료 개방했다고 밝혔다. 아직 광장 조성을 마무리한 것은 아니지만, 방문객과 인근 지역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소통광장은 황룡면 장산리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인근이다.

이 곳은 황룡강과 황룡시장에 가까이 축제나 전통장이 서는 날엔 몹시 혼잡하다. 특히, 주거지와 상권이 밀집돼 평시에도 유동인구가 많다.

하지만 오가는 사람들을 위한 휴게공간이 마땅치 않고, 주차할 장소도 부족해 불편을 겪어왔다.

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과 보행로 등을 갖춘 황룡 소통광장을 조성하고 있다.

부지면적 9152㎡에 보행로와 휴게공간, 167면 주차장이 들어선다. 소요 사업비(21억원·국비 70%·군비 30%)는 농림축산식품부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 선정으로 부담을 낮췄다.

이번 무료로 개방되는 공영주차장은 먼저 조성된 66면이다. 군은 황룡 소통광장 모든 공사를 오는 12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역민은 물론, 황룡강 방문객과 황룡시장 이용객 주차 걱정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지난 7일 이승욱 강진군수와 위성식 강진군의회의장, 마을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향교~문화마을 도로 개통식이 열렸다. <강진군 제공>

강진향교-문화마을 도시계획도로 개통

복삼면~강진읍 10분 단축

강진향교-문화마을 도시계획 도로 개통식이 지난 7일 금실농원 사거리에서 열렸다.

이 도로는 강진군 복삼면(작천면, 병영면, 읍천면)과 동부권을 잇는 도시계획도로로, 2019년 7월 착공 후 2년 5개월이 걸렸다.

국비 7억원을 포함해 총 44억원을 투입한 이 도로는 총 길이 1453m, 2차선이다.

도로 개통으로 복삼면에서 강진읍으로 진입할 경우 10분 이상 단축된다.

2026년 준공 예정인 까치내재 터널 공사가 완료되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